1970年의 公共圖書館

金 京 一
(國立中央圖書館 讀書指導擔當官)

머 리 말

70年代의 문턱인 今年에 들어설때 우리는 번영과 大望을 가지고 前進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 大望이라는 뜻은 큰 希望을 뜻함일진데 希望의 끝에는 반드시 바라는 일의 戰取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번영과 大望의 해의 첫 出發인 今年도 떨어지려는 落葉처럼 不過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70年度의 決算은 一段 끝장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公共圖書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民主市民 社會에 있어서 國民들의 日常的인 活動에서 重要한 情報源과 더불어 國民의 敎室로서의 機能이 强調되고 있다고 함은 이미 굳어진 原理이다. 이 原理에 준해서 지난 1年間의 公共圖書館界가 어떻게 活動했으며 또 公共圖書館으로 하여금 그의 存在價値를 國民속에 어느 程度 심었는가를 돌이켜 보기로하고 나아가서는 71年度의 活動課題가 될 수 있는 宿題를 提示해 보려고 한다.

公共圖書館의 槪況

먼저 公共圖書館의 槪況을 살펴보면 1969年度의 公共圖書館 總數가 60個館이였으나 今年의 總數는 58個館으로 2個館이 적어졌다. 이 原因은 數의 增加만을 劃策했던 京畿道의 郡立圖書館이 2個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圖書館이 地域社會의 文化機關으로서 設置되었다가 폐쇄된다고 하는 것은 地域的인 變動에서의 合併이라든가 또는 政策的인 發展으로 인하여 擴張하기 위한 原因 등이 있을 수 있는 現象인데 이것이 이와 같은 理由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設置한 地方行政機關의 自治財源의 不足이라고 하니 計劃性이 없고 對策이 없는 處事라고 아니 할 수 없다. 今年에 2個의 公共圖書館이 增設되었다고 해도 새발의 피格인데 2個가 줄었으니 今年의 公共圖書館의 設置에서는 後退했다고 結論을 맺어야 하겠다.

現在 58個의 公共圖書館의 本籍 問題에 있어서 應當 所屬이 一元化되게끔 規定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文敎部 所屬이 24個館이고, 內務部 所屬이 34個館으로서 文敎部가 지고 內務部가 勝利하고 있다. 이 公共圖書館의 所屬 一元化 問題를 確立하기 위해서 數年前부터 公共圖書館의 當面課題로서 硏究 論議하여 왔으나 아직도 本籍이 二元化되어 있으므로 同一한 本籍을 가져야 할 兄弟들이건만 두개의 本籍으로 갈라진 채 今年도 또 넘겨야 하니 같은 피의 兄弟들의 안타까운 가슴속은 年內에 풀리기는 다 틀렸고 來年에 견우직녀가 만난다는 칠월 칠석날이나 기다려 보는 道理 밖에는 없을 것 같다.

2個의 公共圖書館이 줄고, 所屬이 二元化되어 있는 與件下에서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으로 하여금 道別 人口와 比較해 보기로 하되 가장 對象 人口가 많은 順位로 1, 2, 3等까지 추려서 比較해 보기로 하겠다.

區分 / 市道別 / 等別		人口總數	公共圖書館 數	公共圖書館 1個館이 차지하는 人口數
一等	全南	4,541,368	3	1,513,789
二等	忠南	2,906,336	3	968,778
三等	서울	4,143,155	7	591,879

위의 比較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等 入選道는 1個館當 人口가 1,513,787名으로서 단연 一等의 資格을 充分히 가지고 있으며 發展 國家와의 比較 考察할 餘地가 없다. 實로 그 地方의 公共圖書館은 질식할 지경이며 寒心한 일이다.

다음으로는 公共圖書館의 內的인 實態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58個의 公共圖書館中에서 圖書館 專門職員이 全혀 없는 곳이 37個館으로서 汽車는 있어도 機關手가 없는 것과 같은 圖書館이 全體 公共圖書館의 半數 以上이나 된다는 事實은 놀라기에 앞서 公共圖書館의 生存論을 疑心케하는 處事로서 國家의 社會文化政策의 맹점을 보여주는 좋은 實例이다. 그러나 이 37個의 圖書館을 設置하기 위해서 投入된 國家財源이 機關手가 없어서 鐵道위를 제대로 달리지 못함으로 發生하는 損失을 注視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 責任을누가 져야 할 것인가?

또 圖書館資料의 實態를 綜合해 보면 1個館當 平均所藏量이 8,000卷으로 되어있지만 1,000卷에서 3,000卷

을 所藏하고 있는 圖書館이 23個館이고 5,000卷에서 10,000卷을 所藏하고 있는 圖書館이 10個館이다. 1,000卷에서 3,000卷을 所藏하고 있는 23個의 圖書館은 全體 公共圖書館의 約 半이 좀 못되는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圖書購入費는 1個館當 年 平均 344,800원이지만 實際面에서 보면 10,000원以下의 購入費을 가진 圖書館이 24個館으로서 全體의 39.3%를 차지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렇게 볼때 全體의 公共圖書館中에서 39.3%에 해당되는 公共圖書館에서는 公共圖書館의 重要 機能인 情報源으로서의 奉仕活動이란 한낮 口號에 지나지 않으며, 낡고 썩은 資料의 保管所의 役割로서 번영과 大望의 첫해인 今年을 지났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年間圖書館豫算으로 하여금 個個의 圖書館의 奉仕對象住民 1人當에게 投資되는 額數를 보면 最少額 4원에서부터 最高額인 61원이라는 새로운 發見은 公共圖書館과 地域住民과의 距離가 멀다는 原因 究明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公共圖書館의 實態의 마지막 部分으로서 奉仕活動에 대한 事情을 分析해 보기로 하자. 우선 全體 公共圖書館으로 하여금 館外貸出을 實施하고 있는 圖書館이 58個館中에서 14個만 하고 있으며 全體의 23%가 된다. 나머지 44個館에서는 아직도 實施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閱覽方式에 있어서는 閉架式方法을 適用하고 있는 圖書館이 75.4%이고 開架式과 半開架式이 10%, 開架와 閉架式 混用이 6.6%로 되어 있다.

以上은 이 해를 넘기려는 現在의 公共圖書館界의 實態를 大略 간추려 究明해 보았으나 이미 部分別 實態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들이 表面上의 結果만을 보고 公共圖書館界가 날로 發展하고 있다고 評價를 하지만 實際로 公共圖書館의 밑바닥에서 究明해 보면 發展됐다고 評價하면서 發展이라는 말로 表現하기에는 極端的으로 用語 自體의 使用에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은 筆者의 率直한 心情이다. 實로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위해서는 무엇부터 어떻게해야 할지 우둔한 筆者로서는 빛을 찾기가 망막하다. 그러나 빛을 찾아 遂行하여야 할 우리들의 課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위한 研究 및 育成 活動

위의 公共圖書館 概況에서는 너무나 悲觀的이었으나 概況에서 究明된 問題들이 하루 아침에 發生한 問題도 아니기 때문에 이 問題點들을 打開하여 前進하려고 每年 館界에서 努力하고 있음은 事實이나 特히 금년에도 公共圖書館의 發展策을 劃策하기 위한 研究와 育成活動이 많았다고 할 수 있겠다.

1. 示範 公共圖書館 制度의 確立

公共圖書館의 示範 制度는 國立中央圖書館의 全國公共圖書館 指導 育成 方法으로서 示範圖書館 設定의 規定을 制定하여 今年의 첫 示範圖書館으로서 江陵市立圖書館, 晋州市立圖書館, 京畿道立圖書館 등 3個 圖書館이 決定되었으며 이의 指導 事業이 積極化되어 가고 있다 함은 높이 評價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이 示範 圖書館 制度는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균형화하는데 있어서 効果的인 하나의 方法으로서 今年부터 基盤을 確立시켜 놓았으나 示範 圖書館 指定規定에서 指摘한 國立中央圖書館의 支援事業인 巡廻文庫의 設置, 圖書館 資料의 相互貸借實施, 圖書館資料의 提供, 圖書館運營 및 技術指導 등의 計劃性 있는 指導가 要望된다.

2. 公共圖書館部會의 活動

各級 圖書館이 제나름의 問題點들이 날이 갈수록 解決되기는 커녕 나팔만 불다가 해를 넘기는 것이 常例인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唯獨 公共圖書館部會의 活動만은 活潑하게 느껴진다. 금년 1年間을 通한 部會의 活動을 紹介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公共圖書館세미너의 開催, 部會 自體의 力量으로 公共圖書館세미너를 3回 開催하였다. 第一回는 4月 14日에 國立中央圖書館에서 外部의 專門家들을 招請하여 公共圖書館活動이라는 共同主題로서 開催하였고 第二回는 8月4日에서 6日까지 3日間 江陵市立圖書館에서 開催하였다. 發表內容은 :

공공도서관 소속청 일원화문제…김 종문
향토자료의 수집 보존…이 택준
마을문고 독서회운동과 지방 공공도서관의 활동…강 예권

第三回… 11月4日부터 7日까지 4日間 濟州道立圖書館에서 開催하였으며 發表內容은 :

제주도 지역사회의 개발과 도서관…고 봉식
공공도서관의 직제확립…신 학균
공공도서관의 예산 확보문제…권 재식
공공도서관의 수서정책…현 규섭

以上 3回의 세미너에서 採擇된 主題라든가 方向이公共圖書館의 現況에서 指摘된 當面한 問題들의 解決과 發展을 위한 對策을 具體的으로 究明하였다고 할 수있으며 이러한 部會別 세미너의 活動은 다른 部會의 組織과 活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이 部會 活動으로 하여금 公共圖書館이 부닥치고 있는 모든 隘路點을 打開하여 發展시킬 수 있는 羅針盤이 될 수 있도록 繼續的인 活動이 있어야 함은 勿論이려니와 公共圖書館의 모든 力量은 이에 協力하여 共同的인 研究와 努力이 切實이 要求되는 바이다. 特히 바라고 싶은 것은 모든 事業과 活動에서도 그러하듯이 部會活動의 年間 活動報告書를 發刊하여 주기

를 부탁드리고 싶다.

둘째로 公共圖書館大會

이 大會는 每年 開催하는 年例行事이지만 이 大會가 始作된지도 거이 10年이 되어가고 보니 大會의 性格이나 方法에 있어서 한번 再檢討되어야 할 段階임을 느끼고 있는 것은 會員들의 衆論이기도 하나 今年度의 大會도 例年과 비슷하게 進行되었다. 大會 場所는 晋州市立圖書館에서 開催되었으며 主題發表는 다음과 같다.

외국의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강일세
공공도서관의 직제의 제도화 문제…최창균
도서관학의 문제점…이 홍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김 문현

이 發表 主題를 보면 두가지로 大別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發展國家의 圖書館 活動을 알고 이를 우리의 現 公共圖書館에서 어떻게 適用하여 對民奉仕를 위해서 改善시켜야 할 것인가에 目標를 두었다고 하겠고 두번째로는 앞에서 言及한 公共圖書館의 本籍問題의 解決을 試圖하려는데 目標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目標에 대해서 이 해를 넘기는 이 마당에 아무 냄새가 없다. 來年에도 쉬지말고 繼續的인 解決을 위한 對策과 努力이 있어야 하겠다.

세째로 韓國地域社會 및 公共圖書館 實態調査 發刊

이 實態調査 報告書는 公共圖書館部會에서 調査 分析한 報告書로서 큰 收獲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다. 特히 內容에 있어서 從來의 實態 調査가 圖書館에만 極限한 點이 있었으나 公共圖書館의 社會敎育的인 面에서의 알맞는 奉仕活動을 地域社會의 特性에서 展開하기 위한 方法을 摸索하려는 意圖로 各 地域社會의 實態를 比較的 仔細하게 分析하였음은 地域別 公共圖書館의 奉仕活動의 政策 樹立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結 論

以上에서 더듬어 본 것과 같이 今年度의 公共圖書館의 發展으로의 指向 過程에서 볼 때 解決되지 못한 重要課題들이 內外的으로 한두가지가 아니며 이 課題들은 公共圖書館의 發展의 길을 마련해 줄수 있는 基本的인 要素들인 것이다. 이 要素들의 解決을 위한 政策的인 圖爭이 없이는 社會敎育機關으로서 公共圖書館의 機能發揮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問題가 그러하드시 筆者의 私見으로서는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위해서는 國家的인 長期 公共圖書館의 振興策을 關係行政當局과 共同으로 樹立하여 重點別 年次別로 振興시켜 나갈 수 있는 計劃的인 育成 開發事業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또 이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 圖書館人만이 參加할 것이 아니고 各階 各層의 人事들을 參與시켜 支援과 協助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또 來年으로 移越시켜야 할 課題로서 가장 重要한 것은 現 公共圖書館 所屬의 一元化, 財政確保, 專門職의 確保, 運營의 近代化, 文敎部의 全國市郡區單位圖書館 設置 5個年 計劃에 의한 公共圖書館의 增設등의 課題들이 하나 하나 段階的으로 면밀한 政策과 戰略으로 打開되도록 다시 한번 決心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註) 公共圖書館의 概況에서 說明한 分析的인 實態는 公共圖書館部會에서 發行한 "한국지역사회 및 공공도서관 실태조사"를 參考資料로서 引用하였다.

****

(9면에서 계속)

는 다만 設置者別로 區分한 大學도서관이란데 拘礙되지 않고 大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이 서로 연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主題別部도 전문분야의 장서를 수집하고 전문적인 정보써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特殊도서관으로 看做하고 있다(註3).

4. 結 言

이상에서 우리 나라의 특수도서관 현황 및 1970年度의 成長狀況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지난해에 圖書館協會에서 發刊한 金京一 著「特殊圖書館」이란 책자를 빠트려서는 안될 줄 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特殊圖書館에 對한 圖書가 特殊圖書館인 中央敎育硏究所圖書館에서의 體驗을 살려서 著述한 이 책은 1970年 特殊圖書館界의 큰 成果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特殊圖書館의 發展을 위해서 前章「圖書館大會」篇에서도 말했듯이 또 이미 出帆을 한 9개 대학 도서관과 12개의 병원도서관이 모여 한국 의학도서관협의회를 組織하여 專門部門에 對한 活發한 토의와 活動을 하고 있듯이 대학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이 設置者別로 區分한 部會構成과는 別個의 學問主題別 기구를 구성하여 圖書館奉仕에 對한 硏究活動이 活發히 進行되어야 할 줄 믿는다.

<참 고>

韓國圖書館協會 編,「한국도서관일람 1969」
韓國圖書館協會 編,「한국도서관통계, 1970년」
國會圖書館 編,「국회도서관보」1970年 5月號

(註 3) Kruzasu, A.T. Business and Information Lab. in the U.S. 1820~1940, New York Special Lib. Associ, 1965.